

2012년 5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2. 5.31(목)

주요 발언 내용

▲ 파업으로 인해 뉴스 꼭지 부족해

- 파업 영향 우려 (김정연 위원, 김경모 위원)
- 사건 사고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음. 뉴스Y도 계절별 편성 전략을 고민해야 (김경모 위원)
- 런던올림픽 특집 프로그램 나와야 (최종준 위원)

▲ 여수엑스포 홍보성 기사와 뉴스성 기사는 구별해야

- 여수엑스포 관련 보도가 뉴스성 기사가 아니라 홍보성 기사 같은 느낌. 구별할 필요 (김경모 위원)
- 긴 행사이다보니 바가지, 숙박문제, 갑작스런 예약제도 폐지 등 지금 시점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해줘야 함 (김경모 위원, 한박무 위원)

▲ 뉴스 및 제작 프로그램 개선 필요

- '아웃도어네비게이션' 프로그램은 정보 제공성인지 단순 환기성 프로그램인지 콘셉트를 알 수 없어 아쉬움 (이석구 위원)
- '북한은 오늘'의 전문가 분석이 뉴스 형태로 나가다 보니 시청자들은 사실로 받아들일 여지가 많아 주의 필요 (이석구 위원)
- 통합진보당 및 민주노총 기자회견 중계에서 질의응답 도중 갑자기 방송이 중단되고 광고가 나감. 방송사고인지 광고 방영 때문인지 의문 (김정연 위원)
- 여수엑스포에서 사무총장과의 인터뷰에서 자료화면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인터뷰 장면만 방영. 경제적 효과 위주로만 보도해 국제 속 한국의 방향과 가치 등을 다룬 보도가 약했다고 생각 (이석구 위원)
- 통진당 사태가 심화되면서 정치면 뉴스도 통진당의 자극적인 장면에 집중 되는 경향. 정당 뉴스를 다룰 때 균형 필요 (차경애 위원)
- 2012 정치권 분석을 주제로 전문가 인터뷰를 하면서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가 수차례 나왔음. 전문가 다양하게 섭외할 필요 (차경애 위원)
- 5월 9일 방영된 '돌고래쇼, 폐지 대신 생태설명회로' 꼭지에서 제목 선정에 신경써야. 생태설명회가 이름만 바뀐 돌고래쇼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목에 치우친 느낌 (차경애 위원)

▲ 정확, 신속한 보도 중요

- 에닝요 귀화 문제 이슈에 대해 귀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, 귀화가 무엇인지 등 뉴스Y만의 분석 기사를 미리 보도해야 (최종준 위원, 김정연 위원)
- 5월 19일 광주 봉선동 도심에서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타사에 비해 늦었음. 연합뉴스와의 협업도 중요 (김정연 위원)

▲ 이슈를 짚는 보도 주제 선정 필요

- 런던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이 나왔으면. '카운트다운투런던'은 외국 프로그램이라서 와 닿지 않음 (최종준 위원)
- 체육과 공부를 분리하는 교육, 소화 당뇨 비만 등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방영 필요 (최종준 위원)
- 기획물로 바람직한 대통령상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하면 좋을 듯 (김정연 위원)
- 대선, 차기 정부 어젠다, 복지, 경제 등 직장인들의 관심사들을 모아서 관련된 정보를 쫓으면 (이상목 위원)
- 게임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폭력성에 대한 정보를 '취재뒷마당'에서 다뤘으면 (이상목 위원)

▲ 관행적 보도 포맷 벗어나야

- 반복되는 뉴스 때문에 뉴스Y를 보면 설렘이 없고 평탄한 것 같아 아쉬움 남아. 예를 들어 '조계사 봉축식'을 다룬 보도의 경우 수십년간 되풀이한 방식 그대로. 관행적인 포맷에서 벗어날 필요 (박영상 위원장)
- 미국 뉴스는 맨 마지막에 웃음을 주며 끝내. 우리도 뉴스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재밌는 뉴스로 바뀌어야 할 필요 (박영상 위원장)
- 부분일식, 올림픽 10주년 보도 등은 좋아 (박영상 위원장)
- 날씨가 건강, 음식, 의복에까지 파급될 수 있는 만큼 날씨 뉴스는 생활 밀착형 정보로 제공해야 (박영상 위원장)
- 뉴스를 다룰 때는 무색무취가 아닌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(박영상 위원장)

▲ 적절한 전문가 섭외를 통한 대담 유익해

- 광우병 문제 관련 5월 1일 우희종 교수, 고리원자력 납품비리 관련 4월 28일 사실 보도 김해창 교수 전화 연결은 적절 (차경애 위원)

▲ 기타

- 장기적으로는 시청자 타깃을 20대, 30대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SNS, 홈페이지 등 뉴미디어 활용도이 필요. 장기적 비전 갖고 있어야 (김경모 위원)
- 장애인들의 접근성, 유형별 장애인들 고려한 보도방식 필요 (이석구 위원)
- 화면은 안정적으로 정비돼 눈의 피로도가 많이 없어짐 (김경모 위원)

- 검정 바탕의 시계 표시는 눈에 거슬러 흰 바탕이 낫다고 생각 (임영호 위원)
- 사회 이슈의 맥락에 대해 잘 짚는지 그래픽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고 있는 지 뉴스 가치 여부 등이 중요. 앞으로는 위원들은 완전성, 적절성, 짜임새 등에 포커스를 맞춰 모니터링 해야 (박영상 위원장) (끝).